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9 772234 103000 03 >
ISSN 2234-103X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2023. 03/04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MARCH / APRIL 2023
통합의료원보 VOL. 76 03/04

'순천향' 정신은
생명존중과 환자의 행복입니다!

박종규 신경과 교수 & 동길순 환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Photo Essay_

4월이 오면

권영상

4월이 오면
마른 들판을
파랗게 색칠하는 보리처럼
나도 좀 달라져야지

솜사탕처럼 벙그는
살구꽃같이
나도 좀 꿈에 젖어
부풀어 봐야지

봄비 내린 뒷날
개울을 마구 달리는
힘찬 개울물 처럼
나도 좀 앞을 향해 달려 봐야지

오, 4월이 오면
좀 산뜻해져야지
참나무 가지에 새로 돋는 속잎같이

순천향

2023. 03+ 04 VOL. 76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SPECIAL 04
"자랑스런 순천향 정신, 눈부신 성과,
이제는 알려야죠"
- 서유성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원장

LOVE 08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 박종규 신경과 교수 & 동길순 환자

FOCUS 10
순천향대중앙의료원
환자용 스마트 모바일 앱 출시

DOCTER 12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보는 버팀목 같은 의사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안병준 신경과 교수

HISTORY 16
의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VISIT 18
"'우린 QI 특공대!',
순천향의 퀄리티를 높인다"
- 순천향대 서울병원 QI실

WITH 22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의 희망이 되다"
- 밀알회

ISSUE
연구부 학술대회 및
의료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26

문종호 교수팀, 소화기 내시경
국제 심포지엄에서 강연 및 시술 28

튀르키예 지진 재난지역에
긴급 의료진 파견·뜻깊은 기부 29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30

최신 유전자 정밀진단기기 도입 31

구미시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 개소 32

KNOWLEDGE
"임신과 출산,
강직척추염 악화시키지 않아" 34

뇌졸중 이럴 때 위험 신호 36

낫지 않고 계속되는 입병 '구강암' 일수도 38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40

NEWS 42

표지설명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를 위기의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과 빠른 응급대처로 아무런 후 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한 순천향대 천안병원 박종규 교수와 동길순 환자를 표지 모델로 삼았다.

통권 76호
발행일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종, 배지연, 이상원, 유채민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연락처** 02-709-9592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자랑스런 순천향 정신, 눈부신 성과, 이제는 알려야죠”

내년 서울병원 50주년 앞두고 제2의 순천향 시대 비전 제시

순천향대중앙의료원 통합 의료원보 발행인으로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9월에 4개병원 각자도생하던 소식지를 지금의 통합의료원보로 제작 총괄 기획을 맡으셔서 탄생시킨 주역이십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과도 도출하셨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은 발행인으로서 감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원 차원에서 통합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인에서 봤을 때도 순천향의료원이 작은 규모가 아닌데 산발적인 목소리보다는 규모에 맞게 통합하고 전국에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순천향의 모습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무자들 의견도 종합해서 현재의 순천향의료원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발행인을 맡고 있어서 특별한 애정으로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다 소장을 할 정도로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계속 잘 도와주고 계시는 피엔플러스와 백승주 대표님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을 2012년부터 5연임 하셨습니다. 또한 연임 중에 4개 병원을 총괄하는 의료원장과 순천향대 의무부총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단한 위업을 달성한 나름의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업’은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냥 나름 소신을 갖고 하다보니 좋다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 병원장으로서의 재임기간을 돌이켜보면,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병원의 현재 상황과 어려움, 약점 등을 공유했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영정보 공유 등 이런 것들이 나쁘게 비추면 상당히 나쁘게 비칠 수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됐고, 4개 병원이 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시스템화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도 받고, 교직원들한테도 신뢰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병원 5년임과 의료원장 의무부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코로나 감염사태가 발생 됐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지만 당시 상황은 거의 전쟁 수준이었는데 최고 책임자로서 취임하자마자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라는 원망은 안 하셨는지요?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필이면 우리 병원이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알려진 존스홉킨스병원도 위기를 경험으로 세계적으로 안전한 병원이 되었듯이 우리 병원도 당시 시련을 통해서 던 안전하고 새로운 병원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소독과 방역은 물론, 감염병 대응과 관리 체계를 꼼꼼하게 보완했고, 감염병 신속대응팀도 정비해서 감염관리팀을 중심으로 데이터상황실, 안전보건상황실을 보강해 원내외 소통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원내 감염 방지를 위해 보호자 및 간병인의 밀집 문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병동에서의 층간 이동 제한, 여타 간병인과의 만남 금지, 병실에서의 식사 지침도 보완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변화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숨기고 싶은 비화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비화라면 비화이고, 숨기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19 초기에는 정말 강력한 격리정책을 해서 우리 병원도 그렇지만 병원이 폐쇄되고, 개인적으로 격리가 되거나 확진이 되면 사회적으로 지탄 아닌 지탄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저도 초기에 대한병원협회 회의에

“저의 좀 모자라는 능력을 열정으로 커버하고자 노력하였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서유성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원장의 지난해 서울병원장 퇴임사 중 일부다. 서 원장의 이런 정신은 그동안 서울병원과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을 이끌어 온 힘이 됐다. 순천향이 자랑스러워 하는 의사, 순천향을 자랑스러워 하는 의사 서유성. 그가 생각하는 제2의 순천향 시대는 어떤 것일까? 차 한 잔과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대담_백승주 대표 정리_ 전진용 사진_ 최종엽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원장

서유성

참석했다가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격리를 경험하고, 가까운 주변의 걱정을 드린 경험이 있네요. 다만 여론에 떠밀린 듯 한 방역 당국의 대처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방역방법 지침의 부정확함이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그 방법이 부정확하고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병원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모든 방역을 완벽하게 진행했지만 말입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겸손한 친화력으로 병원 내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혹시 그 행동하는 겸손의 친화력이 발휘되어 병원 내 문화를 바꿔 놓은 게 있을까요?

평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거운 직장, 환자와 직원 모두 만족하는 행복한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직장에서 동료들과 보내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끼리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고 상처를 보듬어야 하지 않을까요.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직원 상호 간 존중하고 신뢰와 믿음으로 대하고 즐거운 병원, 재미있는 병원, 출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 잘 지내요' '순천향 라디오' '하모니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많은 성과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직원들도 공감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태원 핼로윈 참사 때 가장 근접한 병원이 순천향대병원인데 당시 대처 상황과 긴박감을 말씀해 주시죠.

당시 밤 11시경부터 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CPR 환자 두 명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생존자가 아닌 희생자분들의 시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총 79구의 시신이 저희 병원에 도착한 것이죠. 가용할 수 있는 의료진과 행정직 모든 인원이 그 밤에 집결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저희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빠른 판단으로 새벽 2시부터 재난본부와 소통해 각지 병원의 영안실로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유가족의 불만도 있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신속한 판단이었으며 완벽한 대처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이정재 서울병원장님이 잘 대처해 주셨고, 저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고생하신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의 비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늘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나 정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상황도 경기침체에 고물가에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 경영도 긴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 건 해야 하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해 의료원에서 주력할 부분은 천안병원 새 병원 건립 완공, 구미병원 외래관 증축, 서울병원 50주년 기념 사업, 의과대학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ESG경영입니다.

천안병원 새병원과 구미병원 외래관은 현재 순조롭게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병원 개원 50주년 사업도 본격적으로 지원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ESG경영은 아직 각 병원별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료원에서 주도적으로 스마트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물자 및 에너지 절약 방안을 강구해서 각 병원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핫 이슈는 천안병원 건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제 완공되는지 궁금하고 설립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시오.

천안병원 새병원은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원 40년간 함께해 온 지역주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중부권 최종 거점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건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병원은 벌써부터 지역 원도심 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 산하에 4개 병원이 있습니다. 혹시 커뮤니케이션의 미흡으로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법합니다. 소통방식을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조정자 역할과 더불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앙트레 플레너', 불확실한 미래에 좀 더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를 아끼지 않는 '앙트레 플레너 의료원장'이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의료원장의 임무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천향 각 병원은 지역도 다르고, 환경과 특색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릅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병원 간 합의를 통해 일관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때론 방향의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의료원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하나 된 생각과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조정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장으로서 의료원 운영 철학과 이것만은 임기 내에 꼭 하고싶다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내년 서울병원 50주년을 앞두고 우리 자랑스런 순천향의 정신, 놀라운 성과를 이제는 외부에 좀 더 알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저희 의료원의 올해 매출은 약 1조 2천억원으로 국내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맞게 제2의 순천향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향은 늘 불모지와 같은 의료 취약지역에 병원을 설립해 인간사랑을 실천해 왔기에 잘 준비해서 더 큰 인간사랑을 전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순천향의 이런 성장과 행보를 모르는 동문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는 우리 순천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 동문들의 긍지도 높이고 싶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아 저평가되어 있는 순천향에 대한 외부의 시각도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병원을 아우르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의료원 산하 홍보팀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순천향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골프마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는 건 없었는데요. 최근엔 헬스 PT를 좀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카르페디엠(carpe diem)' '아모르파티(amor fati)'라는 말을 좋아해서, '현재를 즐기고 내 인생을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건강관리라면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면, 성실, 정직함을 잃지 않고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도 유지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교직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성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우리 의료원과 병원이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합심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무슨 일이든지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와 동료를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즐거운 직장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장 때 강조했던 'TO BE WITH YOU'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자랑스러운 순천향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져…완벽 응급대처로 후유증도 ‘제로’

국내 성인 인구의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만큼 성인이라면 누구나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무서운 점은 기저질환이나 증상이 없어도 예상 못 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치명적인 후유증으로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글_ 전진용 사진_ **권남기**

이런 급성뇌경색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았지만 정확한 판단과 발 빠른 응급대처로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다시금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동길순 환자(67세)는 어린 손주를 재우며 여느 때와 같은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8시쯤이 되자 이상하게도 핸드폰을 터치하는 손이 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그냥 좀 피곤해서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며 화장실에 갔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2미터 거리를 30분 넘게 기어가다

동길순 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장실 바닥으로 쓰러졌다.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겨우 목소리를 낼 수는 있었지만, 발음이 잘되지 않았다. 동길순 환자는 겨우 2미터의 거리를 30분 넘게 간신히 기어가 그나마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딸에게 전화했다.

어눌하고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동길순 환자에게 딸은 “엄마 술마셨어?”라고 했지만 이내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집 비밀번호조차 말해주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린 손주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병원으로 긴급수송이 이루어졌다. 119구급대가 찾은 곳은 바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었다. 딸이 손주를 분만한 병원이자, 환자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병원이 바로 천안병원이었다.

119구급대는 이동 중에도 빠른 판단으로 뇌경색임을 천안병원 의료진에게 알렸다. 천안병원 의료진 역시 환자가 도착하기 전부터 환자 응급치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환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천안병원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될 정도로 이 분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의에 의한 연중무휴 응급진료, 조기 재활 치료, 예방관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응급실에 도착한 동길순 환자에게는 정맥주사를 통해 한 시간 동안의 혈전용해술이 진행됐다. 조금씩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비 증상이 나아지는 듯했지만 다시금 마비증세가 찾아왔다. 혈전용해술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재발한 것이다. 하지만 천안병원 의료진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빠른 대처가 있어 다시금 환자는 재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담당의인 박종규 신경과 교수는 “다행히도 혈전이 잘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고 재발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심뇌혈관계 위급 상황에서 이처럼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한 사례는 그리 흔치 않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동길순 환자는 빠른 병원 생활 적응과 의료진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입원 일주일 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건강을 완벽히 되찾았을 뿐 아니라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았다“지금까지 저의 생활을 뒤돌아볼 기회가 됐어요. 좋아하던 술도 이제는 줄이고 적절한 식단과 운동으로 몸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천안병원 의료진은 퇴원 후에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완벽히 설계해 환자의 건강을 도왔다. 박종규 교수는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환자 치료 후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가 다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사후 활동까지 설계를 해 주는 것이 의료진의 임무”라며 “동길순 환자의 경우는 치료 후에도 의료진의 조언에 잘 따라주고 있어서 이제는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길순 환자는 “위급한 병이었지만 또 지나가는 병으로 생각하고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병이기에 항상 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안 좋은 습관을 잘 관리하겠다”라며 “저를 돌봐주고 이처럼 완벽하게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해준 천안병원 의료진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웃었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 환자용 스마트 모바일 앱 출시

스마트 모바일앱으로 환자편의 증진과 ESG경영 박차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의료원장 서유성)은 환자용 스마트 모바일 APP(앱)을 출시하고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앞으로 환자용 앱을 통해 ▲진료예약 및 조회 ▲검사결과 조회 ▲진료비용 결제 ▲의무기록 사본 신청 ▲실손보험청구 등의 진료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스마트 모바일 앱은 기존 앱의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를 대폭 개선해 이용자들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 글자도 크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환자의 외래일정을 알려주는 스케쥴링 서비스까지 제공

로그인 화면에서는 모바일 진료카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는 환자의 외래일정을 알려주는 스케쥴링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가 놓칠 수 있는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했다.

진단혈액, 임상화학, 요경검학 등의 진단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서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건강 체크도 가능하게 했다. 진료비 결제는 진료비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창구에서 대기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체크 또는 신용카드로 하게 된다. 대리 결제 기능으로는 앱 사용이 불편한 부모나 어린 자녀의 진료비를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입원 수속 앱과 전자 처방전 개발로 종이가 필요없는 의료서비스 가속화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서울, 부천, 천안, 구미)의 스마트 모바일앱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검색하면 받을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은 앞으로 자동 자격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하이패스, 키오스크, 모바일결제 등 비대면 결제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5월 말까지 입원 수속 앱을 개발하고, 이후에는 전자처방전을 개발하는 등 종이가 필요 없는(Paperless) 의료서비스로 변화를 가속화 하여 환자의 편의뿐 아니라 ESG경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유성 의료원장은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은 스마트 진료 환경구축을 통해 환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ESG경영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보는 지역의 버팀목 같은 의사

치매 적정성평가 1등급 이끌어…뇌졸중 치료 연구에도 힘써

요즘 질병 중에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치매다. 구미시 역시 높은 노인 인구 비율로 치매와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이다. 지난 2008년부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과 인연을 맺은 안병준 신경과 교수는 이런 구미시에서 많은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응급실에서 뇌경색 환자도 돌보는 든든한 지역의 버팀목 같은 의사로 통한다.

글_ 전진용 사진_ 한남기

1972년생인 안병준 교수는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어린 시절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냈다. 독일 막스플랑크 뇌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파견된 아버지를 따라 가족들과 함께 갔기 때문이다.

안 교수의 아버지는 순천향 의대에서 해부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순천향 의대 학장도 역임하신 안의태 교수이다. “가족 전부가 일을 위해 외국에 나가는 사례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었다고 하더라구요.” 5~6세의 어린 나이에도 독일어에 서툴렀던 어머니를 대신해 슈퍼에서 통역하기도 했다고 한다. “올해 설에는 아버지께서 막스플랑크 뇌연구소 소장님께 받으신 브로드만의 논문집을 주셨는데 브로드만은 신경과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 저한테도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안 교수는 중앙대학교 의대를 졸업했다. “인턴은 다른 곳에서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몸담고 있으셨던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당시에는 논밭이 많았던 순천향대학교 본교에서 사촌과 뛰어논 기억도 있어서 순천향대학교병원은 저에게 아주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향대학교병원의 인간사랑 이념이 단지 구호로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느껴져서 최근 들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천향대학교 의대 인턴을 지원한 안 교수의 첫 번째 수련과도 신경과였다.

안 교수는 현재 신경과 전공의 없이 직접 응급실 진료 및 외래 진료를 봐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연구활동을 병행하여 2021년에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선정하는 우수학술연구자상을 수상하였다. 2023년에는 경상북도 내 3개 병원 중 일원으로 ‘경도인지장애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국책사업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으로 4월에 국책사업 수주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구미지역 치매 환자 치료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

구미병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1차 치매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 이런 우수한 결과에는 안 교수의 노력이 큰 몫을 차지했다.

안 교수는 2018년부터 구미시 선산치매안심센터에 협력 의사로 위촉되어 2차 치매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구미병원에서 3차 검진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진단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들을 위한 돌봄센터 운영,
경제적인 지원 등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등 치매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지역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도 수여 받았다. 또한, 응급실에서 직접 뇌경색 등 위급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방송 출연을 하여 뇌졸중과 치매에 대해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려 노력하였고 의대 치매 강의 등을 통해 의대생들의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 애쓰고 있다.

“구미시에는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가 있습니다. 제가 파견 근무 중인 선산보건소의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최근 2년 연속 경상북도로부터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노인 환자 비율이 높고 치매검진 및 관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교수는 치매 진료를 위해 구미병원에 도입한 비문해자들에 특화된 인지 신경 검사를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도 교육을 거쳐 도입시켰다.

“양쪽 보건소에서 하는 신경심리 검사는 저희 구미병원의 검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인지기능평가의 일관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검사와 더불어 여러 지역 사회에서 함께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내의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보건소, 종교단체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도 한다. “진단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들을 위한 돌봄센터 운영, 경제적인 지원 등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최근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여러 가지 예산 삭감이 대폭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치매 치료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

안 교수는 치매 진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편이다. “인지기능 검사는 일종의 테스트 같은 겁니다. 전날 잠을 못 잤거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결과값이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면 바로 치매 판정을 하기보다는 한 6개월~1년 뒤에 다시 한번 똑같은 검사를 해서 변화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5차, 6차까지 경과 관찰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울증 동반 여부나 병의 경과가 혹시 뇌혈관질환을 시사하지는 않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Amyloid PET CT가 시행가능한 병원으로 소개해드려 보내드리지만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는 정상 노인들에게서도 Amyloid 양성은 나올 수 있으므로 Amyloid PET CT 결과 하나만으로는 치매를 진단할 수는 없다고 미리 설명 드립니다. 추후 치매 주사치료제가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 Amyloid PET CT의 유용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구미병원에서도 중장기 계획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치매가 치료의 개념보다는 진행을 늦추고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 근본적인 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약제가 국내에 도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교수는 치매 치료의 가능성은 최근 희망적이라 말했다.

“이미 FDA에서 아두카누맙 주사 치료제가 부분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두카누맙 주사제는 아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2023년 올해에는 레카네맙이라는 주사제가 FDA 완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 내로 국내에도 도입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환자대상군만 잘 선정한다면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의학도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뇌경색 환자들을 위한 노력들

지역 내 치매 환자들을 보살피는 것 외에도 지난 2008년 처음 구미에 뿌리를 내린 이후 줄곧 뇌경색과 같은 응급환자들을 돌보는 것에도 안 교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뇌경색 분야는 신경과 안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 급성기 뇌졸중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저희 병원 실정에 맞게 급성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신경방사선과 등 관련과 교수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 후 급성기 뇌경색 치료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뇌경색 환자를 치료하는 추세이기에 추후 뇌경색 병변의 크기를 재는 소프트웨어를 병원에서 도입하게 된다면 회의를 거쳐 프로토콜을 새로 재정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 기록화하고, 환자 히스토리도 알아야

안 교수는 의사로서의 여러 요소 중 경험을 개인 기록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의사로서의 다양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치료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검증된 RCT기반으로 평균적인 상황에서의 기준을 세우는 데는 매우 중요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복잡한 상황들을 다 반영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슷한 사례의 논문들을 찾아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고민했던 사례들을 간단히 기록해 놓으면 자신만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전기와 본인의 일기가 차이가 있듯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째 구미지역에 인연을 맺게 되고
구미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 못지않은
의료혜택을 받는데 제가 일조 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매우 큰 보람입니다.”

지역 사회 의료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면 큰 보람

안 교수 이전에는 역대 구미병원 신경과 전문의 중 10년 이상 근무한 의사는 없었고 신경과 정교수 임용이 된 것도 안 교수가 구미병원에서 처음이다. 안 교수는 의사로서의 목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15년째 구미지역에 인연을 맺게 되고 많은 환자를 살피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구미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에는 아내의 배려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직접 응급실 진료를 보는 것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전문의가 응급실 진료를 직접 보았을 때의 장점은 추후 외래 진료도 제가 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설명이 원활하고 신뢰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일관된 진료로서 타 지역의 더 큰 병원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환자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구미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 못지않은 의료혜택을 받는데 제가 일조 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매우 큰 보람입니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향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의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돈 많이 들고 힘든 학과부터

순천향대학교는 일반적인 대학들과 가는 길이 달랐다. 아니, 정반대에 가까웠다. 그 역시 서 박사의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 때문이었다.

일반적인 경우 대학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적은 인문사회계열의 학부를 먼저 개설하고 그 다음 형편을 고려하여 이학, 공학, 의학 계열의 학부를 증설한다. 반면 순천향대학은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의과대학부터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는 자연과학대학을 만들었다. 의학부나 자연과학부에는 값비싼 연구 기자재와 설비가 필요하다. 신생 대학으로는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원래는 의학대학을 개교한 뒤 의학기술초급대학을 신설하려 했다. 그런데 준비를 하려고 보니 재학생이라고는 의예과 1학년 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급대학을 만들기가 곤란했다. 의학기술초급대학에서는 2년의 재학기간 동안 의대생들이 6년 간 배우고 익힐 기기들을 모두 접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자연과학대학을 만들면 의학대학과 서로 지원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학대학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을 신설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경제적 이유보다 교육적 이유가 우선

순천향의 발전 단계 설정에는 경제적 이유보다 늘 교육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의학대학과 의학기술초급대학으로 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집중 양성하려는 계획은 일단 접었으나 순천향대학교가 후일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자연과학부에 신설할 학과를 정하는 데에도 서 박사는 선견지명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가 좁으니 해양과 토양을 이용할 수 있는 생물학 교육과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서 박사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물리학과, 화학과와 함께 생물학과가 신설되었다. 해마다 전공을 늘려가며 조금씩 확장해가던 1984년경, 병원과 대학의 건축을 도맡고 있던 자회사 유일건설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위기가 닥쳐왔다.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 맞은 순천향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순천향병원과 대학은 자금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서 박사는 순천향대학을 종합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로 건설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그 회사가 학교 건물도 짓고 병원도 지었는데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이었다. 자회사였던 유일건설이 방만한 운영으로 건설공사를 했다하면 적자가 나는 바람에 학교와 병원이 함께 어렵게 된 것이었다. 순천향대학을 만들고 난 후 최대의 위기였다. 학교의 주인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사학재단 중 하나인 중앙대 재단이 부도가 나면서 다른 재단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이미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대기업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실제로 한 대기업이 직접 학교에 나와서 3개월에 걸쳐서 학교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며 실사를 벌였다. 직원들도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여기까지인가”서 박사도 많이 지쳐 있었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면서 병원과 학교를 이끌어가느라 지쳐 손을 떼고 싶은 생각이 들 법도 했다.

알짜배기만 인수하겠다는 제안 단호히 거부

실사를 마친 대기업은 병원과 의과대학만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학부의 인수를 거부했다. 그것은 곧 의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을 없앤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 서 박사는 다른 대학들이 학생들의 관심이 적다는 이유로 설치를 포기하는 학과도 먼 미래를 위해 개설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교육자의 생각과 기업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다. 기업이라고 해서 알짜배기만 가져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학교가 넘어가면 다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서 박사는 직원들을 안심시키며 다시 병원과 학교를 이끌고 나갔다. 병원과 학교에 대한 서 박사의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이나 대학도 설립해 놓으면 그곳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재단전입금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항상 돈이 부족했다. 특히 급여 지급일만 되면 서 박사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렇다고 마냥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하루 이틀 차이인데 서 박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서 박사는 병원보다는 늘 대학에 하루라도 먼저 급여를 보내주었다.

“‘우린 QI 특공대!’, 순천향의 퀄리티를 높인다”

팀워크와 전문성으로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책임

의료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을 뜻하는 QI실은 외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이다. 매우 중요하고 폭넓은 임무를 부여받은 병원 내 특공대와 같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얼핏 쉬운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임무인 ‘병원 내 의료의 질 향상’이 주 업무다. 하지만 병원 전체를 아우르는 범위와 특화된 업무 활동으로 가장 힘든 부서로 꼽는다. 그래서 무엇보다 강한 팀워크와 차별화된 전문성은 필수다.

글_ 전진용 사진_ 김현아

소아청소년과 교수 양현종 실장이 이끄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QI실은 그 어느 팀보다 뛰어난 팀워크가 가장 큰 장점이다. QI 실은 서울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와 이를 수반하는 행정 서비스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자율적·지속적·참여적인 개선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QI실은 양현종 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 방해인 부실장(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이수진 팀장(간호사), 이현경 파트장(간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QI실의 모토는 첫 번째가 환자 안전이며 그 다음에 직원 안전, 그리고 지역의 안전, 이 세 가지를 포괄한다. 또한, 투약 사고나 수술 사고, 시술 사고와 같은 일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운영 매뉴얼과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질 향상체계 운영 및 활동 ▲환자 안전활동 ▲지표관리 활동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 ▲환자, 보호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병원평가 및 유지관리 등이 QI실의 몫이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에 교육 역시 필수다. 지속적인 인증교육과 더불어 추가 업그레이드되는 교육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환자안전법상 300병상 이상인 병원인 만큼 2명의 환자 안전 전담이 활동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환자안전법에서 정한 환자 안전 전담자는 1년에 12시간 이상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외의 팀원들도 1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의 일반적인 간호업무와는 완전히 분리된 전문분야라 할 수 있다. 환자안전학회, 질향상 학회 등의 활동도 더해 끊임없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양현종 실장은 “최고의 팀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발맞춰 질환의 표준진료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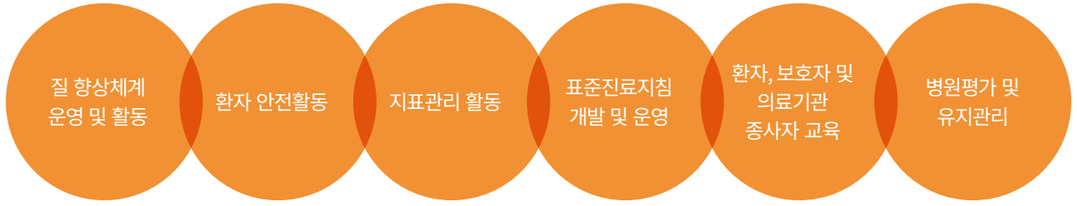
‘의료기관 인증’ 업무로 병원 퀄리티 입증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의료기관 인증’은 QI실의 매우 중요한 업무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안전, 의료서비스의 품질, 의약품 및 인력관리, 환자만족도 등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다. 쉽게 설명해서 병원평가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인증절차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 조사위원단을 꾸려 2년마다 중간평가, 4년마다 인증 검증을 실시한다. 조사위원단은 나흘 동안 모든 진료과와 진료지원부서, 행정 파트를 다니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체크한다. 항목은 무려 512개로 실질적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물어보고, 시뮬레이션까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각종 근거 자료도 모두 제시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인증 성공’이나 ‘인증 실패’로 평가상황을 알렸지만, 최근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해진 핵심 항목 12가지의 점수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병원 QI실은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1년간 병원 내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며 철저히 준비한다.

QI실의 이수진 팀장은 “의료기관 인증은 그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병원 모든 분야에 걸친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올해 역시 지난 1월 20일 ‘의료기관 인증’을 완벽히 수행해 서울병원 QI실 최고의 팀워크와 전문성을 입증했다. 매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의료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병원 QI 실



양현종_ QI실 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

“팀원 모두가 스페셜리스트, 자부심 느낍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QI실의 수장인 양현종 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팀원들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 “QI실 업무는 전문성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팀원 모두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확신합니다. 자부심을 느끼죠.”

양 실장은 “QI는 만약 불량이 있다면 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을 제로화하는 일”이라 설명한다. 병원 전체의 모든 요소, 요소에서 어떤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게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QI실은 환자뿐 아니라 직원,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더욱 향상하고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팀원 전체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에 힘쓰고 있다.

“QI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병원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행복합니다. 병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고 이 같은 문화가 조성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또 하나의 기쁨이죠.” 양 실장은 “서울병원은 시스템을 개선하기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전문성을 갖춘 QI실이 있기에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팀의 리더로서 QI실이 제안하는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병원이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실장을 맡는 동안 QI실의 병원 내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_ QI실 팀장(간호사)

“최고의 팀워크, 발전하는 병원 보며 행복해요”

QI실 27년 차의 베테랑, 이수진 팀장은 주요업무를 총괄하는 QI실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전산을 켜서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확인한다. 그다음에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것이 업무의 시작이다. “병원 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까지 일일이 확인하죠.” 병원 내 수정해야 할 사안이나 보완해야 문제점을 파악해 팀원들과 함께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다. “보통 6개월짜리 프로젝트로, 병원에서 현재 20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환자들을 교육시키는 것,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등이죠. 프로젝트 결과가 좋으면 이를 확정해서 병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도 있지만, 이 중에는 아주 소소하지만 매우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것들도 많다. “예를 들면 항암 환자분들이 고령이신데, 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춰 약을 먹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간병통합 병동 중 하나인 항암병동에서 복용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서 환자분들이 까먹지 않고 제때 약을 복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개선 활동을 시행한 것이죠.” 이 팀장은 “팀원 모두가 병원 내 모든 부분에 세심한 관심으로 귀 울여야 하기에 쉽지 않은 업무지만, 최고의 팀워크로 각자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병원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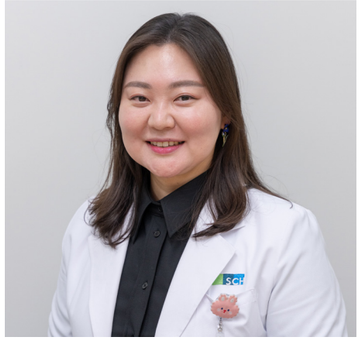
지난해 5월부터 QI실과 함께 하는 방해인 부실장은 발령과 동시에 의료기관 인증 준비에 합류해야 했다. 방 부실장은 팀원 중에 QI실 내 경험은 가장 적다. 그래서 조금은 생소한 분야이기에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준비과정을 통해 QI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그동안 진료 분야에만 있다 보니, QI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QI실에서 경험을 해보니, QI를 통해 병원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보였습니다. 병원 내 각각의 요소들이 마치 살아있는 인체의 여러 세포처럼 느껴지더라구요.” 방 부실장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항상 검사 결과의 질을 관리하는 데 고심해 왔기에 QI실의 업무와는 잘 맞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왜 생겼는지 파악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면 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까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원내 여러요소들에 대해 실장님과 팀원들에게 더욱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방 부실장은 양현종 실장을 보며 QI실 실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배우고 있다. 훗날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QI실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서 서울병원이 환자 안전서비스 진료 분야 최고의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방해인_ QI실 부실장(진단검사의학과 교수)

“QI 통해 병원은 매우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이현경 파트장 역시 17년 차의 QI실 베테랑 팀원이다. 처음 QI실에 왔을 때는 이수진 팀장과 단 둘뿐이었다. 인원도 적고 생소한 업무였기에 처음에는 꽤나 힘들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업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냥 이론으로 조금 배웠던 정도였으니까요.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QI업무를 하면서 병원의 전반적인 시스템도 알게 되고 병원에 대해 생각하고 보는 폭이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람 개개인에 의해서 병원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규정과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병원이 이루어지고 또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I는 그냥 딱 1년만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일을 완전히 터득하려면 1~2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은 배워가야 하구요. 저희 업무가 질 향상, 환자 안전, 지표 규정 등 광범위하다 보니 5, 6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트장은 “서울병원 QI실은 끈끈한 팀워크를 통해 이런 힘든 과정에서도 더욱 공부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조직”이라며 “윗사람을 잘 서포트 하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QI실이 지금처럼 더욱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병원 모든 동료들이 QI실을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경_ QI실 파트장(간호사)

“저희 QI실, 모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의 희망이 되다”

6명 밀알로 출발…24년간 한결같은 환자 후원

“기부는 무엇보다 지속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 원장이자 ‘밀알회’ 창립 멤버인 신원한 교수의 말이다. 밀알회는 지난 2001년 신원한 원장과 인연이 있는 사업가 6명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민간 기부단체다. “밀알처럼 작은 힘이 모여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탄생한 밀알회는 신 원장의 말처럼 24년간 한결같은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수백 명의 환자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해 왔다.

글_ 전진용 사진_ 엄성진

밀알회

전대길 밀알회 초대 회장은 당시 순천향대 부천병원장 신원한 교수와 친분이 있었다. 우연히 동행해 간 곳이 당시 성가복지병원이었다. 천주교 수녀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주로 노숙자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이었다. 신 교수는 병원 운영에, 환자 진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에도 매주 토요일에 병원을 찾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전 초대 회장은 “뭔가 특별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들 쉴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하면서 어떤 대우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도움을 준다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라 생각 들었거든요”라며 그때를 회상한다.

두 사람은 어려운 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봉사단체를 만들기로 의기

1대

전대길_ 밀알회 초대회장

“기부는 지속적이어야, 한결같은 회원들에 감사”

전대길 밀알회 초대 회장은 전 부천병원장 신원한 교수의 의료봉사 활동에 감명받아 함께 의기투합해 밀알회를 설립한 인물이다. 사업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이제 사업 일선에서 은퇴했지만 밀알회에 대한 애정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후원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제 여든 살을 바라보고 있지만 밀알회 모임에는 빠짐없이 나갑니다. 한결같은 회원을 보며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나누는 정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김 회장은 밀알회 외에도 공연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며 음악 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와 후원이 삶이 일부인 샘이다.

“요양원에서 색소폰을 연주할 때 보면, 연주를 감상하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많아요.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를 이어 20년 넘게 밀알회를 잘 이끌어 온 후배 회장들과 회원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전 회장은 큰 기부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부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한다. 이것이 신 교수와 함께 밀알회를 만들고 지탱해 온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큰 기부 보다 지속적인 기부는 그 금액이 작아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 밀알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밀알회가 지금과 같이 전 회원들이 서로 정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기를 항상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전 회장은 “힘이 닿는 한 밀알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항상 함께할 것”이라며 “선배로서 밀알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대

이길구_ 밀알회 2대 회장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삶 주고 싶습니다”

이길구 밀알회 2대 회장 역시 전대길 초대 회장, 신원한 원장과 함께 밀알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다.

초대 사무총장을 맡으며 회원들을 결집시키고 밀알회를 운영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처음 전대길 회장과 신원한 교수가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모임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20년이 넘도록 밀알회가 잘 운영되고 또 기부가 이어지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모든 회원이 한마음이 되어야만 이처럼 오랫동안 후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일선에서 은퇴하고 이제는 고향인 평택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빠짐없이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오랜 시간 여러 봉사와 후원에 앞장서 왔다. 한국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해 많은 봉사 경험이 있으며 밀알회 이전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 의료봉사단을 후원해 왔다. 이런 경험들이 밀알회를 더 잘 이끌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생활 수준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주위를 잘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다만 감사한 점은 사회 곳곳에 소외된 분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분들도 많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 “오랫동안 밀알회와 함께 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1대 전대길 회장님 색소폰 봉사

투합했다. 처음에는 주변 지인을 몇 명 모아 6명으로 시작했다. 6명 회원의 부인들도 자연스레 합세하며 12명으로 출발한 것이 밀알회의 시작이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환자 후원 모임은 2001년 '밀알회'라는 정식명칭으로 탄생했다.

올해로 24년째가 된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작은 밑거름이 되자며 탄생한 밀알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한결같은 기부를 이어왔다. 회원들 회비로 1월부터 11월까지는 50만 원, 마지막 12월에는 100만 원, 매해 총 650만 원을 24년간 기부로 이어온 것이다. 지금까지 총 기부액은 121,733,940원이며, 앞으로도 밀알회의 기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 절반 60세 넘지만 매월 정기모임으로 우정 다져

의사, 유통업, 무역업, 토목, 외식업, 운수업 등 각기 다른 삶을 사는 회원들이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같다. 현재 20명으로 많은 인원도 아니며 절반 이상이 60세가 넘을 정도로 나이도 많은 회원들이지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어김없이 정기모임에 함께 한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며 식사비를 지출하고 술 한잔 기울이며 우정을 나눈다. 전대길 초대 회장은 여든 살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빠짐없이 모임에 참석한다. 회원들은 서울, 부천, 멀게는 홍천에서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임을 위해 달려온다.

개안수술을 통해 225명에게 빛을 선물하다

이들의 이런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모임을 통해 개안수술을 받은 환자가 225명이다. 작은 밀알들의 온정이 모여 어려운 환자들에게 환한 빛을 선물한 것이다. 밀알회 4대 회장으로 9년간 모임을 이끌고 있는 감경식 회장은 "저희 밀알회는 소박한 모임이며 비록 인원도 많지 않지만,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어려운 이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했다"며 "비록 나이도 많고 은퇴한 회원들도 있지만 한 시대를 열심히 살아온 가장들이자 국민으로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 변함없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밀알회는 그것만으로 존재가치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3대

심재하_ 밀알회 3대 회장

"지속적 기부의 가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밀알회 3대 회장을 역임한 심재하 일정무역상사 대표는 전대길 초대 회장과 함께 신원한 원장을 직접 만난 후 망설임 없이 입회를 결정했다. 의료봉사단의 설립 취지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희 밀알회는 의료봉사 지원이 주목적입니다. 회원 간 친목과 우정은 기부를 통한 자연스럽고 귀중한 결과이며 이는 회원 간에도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심 대표는 3대 회장 역임 시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봉사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한 밀알회가 기부한 기부금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나 많은 환우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보람 있고 가슴 뿌듯한 일들이 의료봉사단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행사에도 많이 신경 썼던 기억이 납니다" 심 대표는 선배 회장들의 뜻을 이어 지속적인 기부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다.

"돈 벌기 위해 애쓴 과정을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아까운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부하는 금액이 비록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년 넘게 거르지 않은 기부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심 단합하면 기대 이상의 사회기여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심 대표는 "밀알회 정신과 같은 제2, 제3의 봉사단체가 계속 탄생한다면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우리 사회를 틀림없이 훈훈하게 할 것"이라며 "밀알이 거목이 될 때까지 밀알회가 영원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4대

감경식_ 밀알회 4대 회장

"회원 모두가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 느낍니다"

밀알회를 9년간 이끌고 있는 감경식 4대 회장은 무엇보다 먼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밀알회를 위해 이름 없이 봉사하고 묵묵히 활동하시는 회원분들을 보면 때로는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감 회장은 각자 다른 삶의 터전에서 Opinion Leader의 위치에 있지만, 작지만 보람 있는 봉사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밀알회가 20여 년의 역사로 회원분들의 연령도 높아진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싹터 다시 20년 지나 100년까지 대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 회장은 가끔 도움을 준 개안수술 환자로부터 받은 감사의 손편지를 떠올리곤 한다. 이런 환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은 감 회장이 9년간 밀알회를 이끌어 온 힘이 됐다. "작은 도움을 드린 개안 환자로 전해져온 깨알 같은 감사의 손편지를 받은 후로, 휴대폰 사진첩을 이따금 꺼내 보곤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봉사의 보람으로 9년간의 회장직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노력의 밑거름이 크나큰 결과가 되어 감동적인 순간의 기적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 회장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각박하고 이기적인 사회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실감해 왔다. "수십 년 사업을 하면서 아직 사회의 음지에서 더 어렵고 힘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작은 아픔부터 큰 상처까지 함께 보듬을 수 있는 사회 속의 밀알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 회장은 "선배들을 뜻을 이어 밀알회가 다 함께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CH 서울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연구부 학술대회 및 의료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2월 22일 연구부(장재영 연구부원장) 주관으로 연구부 학술대회 및 의료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진료 활성화 및 첨단재생의료원 임상 연구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 학술대회는 1부 '의료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와 2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 발표'순서로 진행했다.

박재준 핵의학과 대리, 'Hand SPECT/CT scan 제안 최우수상

의료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의료기기, 빅데이터·AI 연구회 주관으로 1월 9일부터 2월15일까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작품을 공모했다. 의료기기, 빅데이터/AI, 그 외 연구와 진료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주제에 대해 공모한 결과, 23개의 아이디어 작품이 제출됐고, 8개의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다.

혁신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개발 후 파급효과를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 '의사소통이 불가한 환자를 대상으로 아이 트래킹 기술 적용 의료기기 개발'을 제안한 보험심사팀 이상경 주임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Hand SPECT/CT scan 자세 고정기구 개발'을 제안한 박재준 핵의학과 대리는 최우수상을 받았고, 'AI 기반 수술 전 위험도 평가 플랫폼'을 제안한 신경외과 박혜란 교수와 'RFID가 삽입된 환자 팔찌 개발'을 제안한 이은미 간호사가 공동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1부
의료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

대상
이상경 보험심사팀 주임
—
최우수상
박재준 핵의학과 대리
—
공동 우수상
박혜란 신경외과 교수 / **이은미** 간호사

출품 아이디어 23개

본선 진출 8개

2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 발표

장재영 소화기내과 교수
'자가 골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이식치료'에 대한 연구 심의과정 및 과제
—
송우진 성형외과 교수
'난치성 창상 치유를 위한 자가줄기세포 기반 나노 하이드로젤 세포전달치료제 개발 연구'
—
조재현 산부인과 교수
'자궁경부암 유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연구계획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 복지부 심의 과제로 연간 6억원 연구비 수주

2부 첨단재생의료 세션에서는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가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중 최초로 복지부 심의를 통과한 과제 '자가 골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이식치료'에 대한 연구 심의과정 및 과제를 소개했다.

본 과제는 연간 6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함으로써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에게 임상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로써 중대한 질환 및 희귀질환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서울병원 첨단재생의료 연구 기회를 확산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성형외과 송우진 교수는 '난치성 창상 치유를 위한 자가줄기세포 기반 나노 하이드로젤 세포전달치료제 개발 연구'를 발표했고, 산부인과 조재현 교수는 '자궁경부암 유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재 병원장은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진료와 수술 등 바쁘신 중에도 연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 주신 결과 지난 5년간 연구비 수주액이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며 "이 같은 발전을 지원하고 이끌고 계시는 연구부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CH 부천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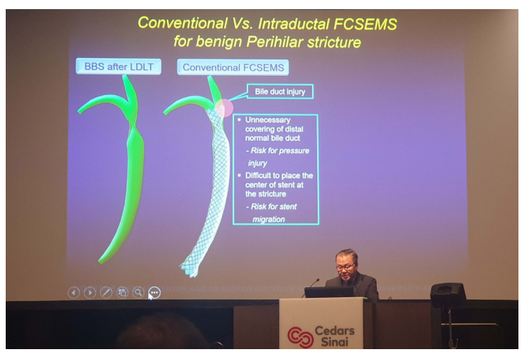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팀, 소화기 내시경 국제 심포지엄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들과 함께 초청 강연 및 시술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팀(문종호, 신일상)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대표 병원인 시더스 시나이 의료센터(Cedars-Sinai Medical Center)에서 개최된 '제30회 소화기 내시경 국제 심포지엄(2023.01.26~29)'에 초청받아 강연 및 미국 환자 대상의 내시경 라이브 시술 시연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문종호 교수는 '양성 담도 협착 환자의 내시경적 치료'와 '심한 담관암 환자의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 연속으로 강의했으며, 이어 '만성췌장염 환자에 동반된 췌석과 췌관 협착에 대한 내시경적 치료'와 '난치성 담관 결석 환자에서 최신 담도내시경을 이용한 결석 분쇄 및 제거'를 성공적으로 시술하여 참석한 의료진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함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내시경 라이브 시연 중에 한국 기술로 개발된 각종 금속 스텐트를 소개하여 내시경 분야에서 한국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노력했다. 한편,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역사가 깊은 내시경 관련 라이브 심포지엄 중 하나로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30주년 기념으로 성대하게 진행됐다.

해당 심포지엄에 국내 의대 교수가 초청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문종호 교수의 이번 3번째 초청 강연 및 시술은 소화기 내시경 분야에서 그의 세계적인 전문성과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췌담도 내시경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인도의 Reddy 교수(가운데)와 함께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라이브 시술을 하고 있는 문종호 교수(좌측)



심포지엄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

SCH 부천병원

튀르키예 지진 재난지역에 긴급 의료진 파견·뜻깊은 기부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튀르키예 지진 재난지역에 긴급 의료진을 파견하고, 교직원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뜻깊은 기부를 하는 등 지진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지난 6일 7.8 규모의 강진으로 튀르키예에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김호중 응급의학과 교수와 김세아 간호사 등 의료진이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튀르키예 아다나 지역에 긴급 파견돼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직원은 의료진 파견을 앞두고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기부 캠페인을 통해 현지 부상자 치료를 위한 기금과 구호 물품을 마련했다. 교직원 87명이 총 836만 원을 모금했으며, 40여 명이 겨울 의류와 이불 등 방한용품과 여성위생용품 등 구호 물품 총 50박스를 기부했다. 구호물품은 튀르키예 현지로 전달해 재난 극복에 힘을 더했으며, 모인 기금은 현지 의료지원 및 구호물품 구입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5가정이 6개월 동안 지낼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사용됐다.

이번 의료지원을 총괄한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는 "현재 튀르키예 의료시설에 부상자가 과도하게 유입되어 현지 의료진만으로는 대응이 역부족인 상태"라며 "지진으로 피해 입은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병원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숭고한 일에 앞장서주신 의료진과 구호 기금 및 물품에 정성을 보여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의료진의 무사 귀환과 튀르키예, 시리아의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한다'를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2021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을 운영하는 등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에도 앞장서 왔다.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천안병원이 1월 2일 오후 '충청남도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박윤형)'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은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박상흠 순천향대천안병원장, 박윤형 심뇌혈관질환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신관1층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9월 지정된 천안병원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장혈관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집중진료기반을 구축하고 충남권역민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 등 4개의 전문센터로 구성돼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연중무휴 응급진료, 조기재활치료, 예방관리 활동 등을 수행한다.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앞으로 병원 내 전문센터간 유기적 협력은 물론 충남지역 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연계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충남지역 어디에서든 환자 발생 시 적정시간(3시간) 내에 전문진료가 가능하게 되고, 퇴원환자 추구관리 서비스 및 지역사회 교육 등 효율적인 예방관리사업도 가능해진다.

박윤형 센터장(예방의학과 교수)은 "심뇌혈관질환 발병률의 증가추세로 인해 센터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지속적인 센터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향상 선도적인 활동으로 충남의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은 낮추고 생존율은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병원은 센터 본연의 사업 외에도 별도의 심뇌혈관질환 연구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병원과 인접한 순천향대의대,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관련 치료법, 치료제, 치료기기 개발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편, 2024년 초 새병원 개원과 함께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활용해 더욱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헬리포트까지 구비함으로써 신속한 이송 치료 또한 가능해진다.

충청남도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좌로부터 서유성 의료원장, 서교일 이사장, 박상흠 병원장, 박윤형 센터장, 최미영 노조위원장.

최신 유전자 정밀진단기기 도입

암 및 유전성 질환에 대한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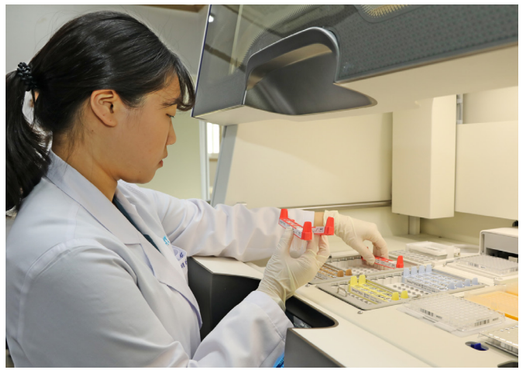
천안병원이 암 및 유전성 질환에 대한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신형 유전자 진단기기를 도입했다.

병원이 도입한 기기(Genexus System)는 전자동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ext Generation Sequencing) 장비다. 수백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대용량 염기서열 분석 장비다. 이지혜 교수(병리과장)는 "몇 개의 유전자만을 검사하고, 결과를 얻기까지도 몇 주의 시간이 걸리던 기존의 단일 유전자 검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진단기기"라고 설명했다.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의 범위가 넓어 대량의 유전정보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의료진이 단 하루 만에 수많은 유전자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최신형 NGS 진단기기 도입으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암과 각종 유전성 질환의 치료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월 21일 오후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 천안병원 박상흠 병원장, 박형국 진료부원장, 백무준 연구부원장, 이지혜 병리과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GS 정밀의료검사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박상흠 병원장은 "NGS 검사실 운영으로 암환자와 유전성질환 환자들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밀의료,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실시기관'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 NGS 정밀의료검사실의 의료기사가 새로 도입한 전자동 NGS 진단기기를 이용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SCH
구미병원

구미시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 개소

순천향대 구미병원, 365일 24시간 소아과 전문의 응급진료

경북 중서부권 최초로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설치됐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1월 9일 본원 향설회의실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구미시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등 각계 기관장을 비롯하여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정일권 병원장, 양승부 부원장, 이정원 응급의료센터장 등 100여 명의 내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소식 행사는 ▲개식 및 내빈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인사 및 축사 ▲현판 제막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인과 진료 공간 분리로 소아청소년 전용의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2022년 10월 27일 구미시와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구미시로부터 시설과 장비 등 약 1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지원과 구미시민의 긍정적 호응 및 관심으로 1월 1일부터 24시간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는 소아청소년 전문의 5명과 소아응급전담 간호사 12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응급실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성인과 소아의 진료 공간을 분리하고 어린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가동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전문적인 응급의료시설과 이비인후과용 내시경 장비, IV 램프 등 최신 의료장비도 도입됐으며,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여 양질의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소아응급환자 내원시 신속한 환자 분류와 치료를 하는 등 진료의 효율성 및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정일권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

김장호 구미시장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구미시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 개소는 김장호 구미시장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구미시민 여러분의 호응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역민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진력하여 지역의 중심이 되는 최고의 거점병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일권 병원장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와 혁신적 협업과 구미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를 경북중서부권에서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다"며,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룬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를 정착시키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순천향 인술 100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제막식

"임신과 출산, 강직척추염 악화시키지 않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이경언 교수팀 보고

이경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이경언 교수팀이 임신과 출산이 강직척추염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신 중에는 골반과 허리에 지속적인 압력이 불가피하게 증가하지만, 현재까지는 임신과 출산이 강직척추염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강직척추염을 앓고 있는 가임기 여자 환자들은 임신이나 출산 후 질병의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

강직척추염 여성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

강직척추염은 천장관절과 척추의 염증을 특징적으로 하는 만성 염증 질환이며, 보통 10~20대에 증상이 시작되는 질환이다. 발병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외에도 물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 요인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왔다.

이 교수팀은 '임신이 강직척추염의 방사선학적 진행에 주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에서 CT 검사를 진행한 강직척추염 여성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천장관절과 척추의 방사선학적 변화의 차이가 없는 것 확인

강직척추염을 진단받고 추적 중인 환자 중 임신과 출산을 한 여자 환자와 임신이나 출산력이 없는 여자 환자의 천장관절과 척추의 변화를 CT로 비교했다. 그 결과 천장관절과 척추의 방사선학적 변화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경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강직척추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증상을 안정시키고 주치의와 임신, 출산 계획을 잘 세운다면 강직척추염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언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팀<이소연(강동경희대병원), 김세희(건국대병원) 김현숙(순천향대 서울병원), 김해림(건국대병원), 이상훈(강동경희대병원)>의 연구는 SCI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2022년 12월)에 게재됐다.

> "이번 연구를 통해 강직척추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증상을 안정시키고 주치의와 임신, 출산 계획을 잘 세운다면 강직척추염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뇌졸중 이럴 때 위험 신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구토 증상 정기검진 기저질환 관리 중요

추위진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해볼 수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세포가 손상되어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으로 나뉜다.

이호준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

뇌졸중 주요 증상은 반신마비, 감각 이상, 두통, 구토, 실어증, 발음 장애, 어지럼증, 걸음걸이 이상, 시야장애, 복시, 음식을 먹거나 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 등이다. 특히 일시적으로 뇌졸중 의심 증상이 왔다가 수 분 내에 호전되는 '일과성 뇌허혈발작'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 진행 확률이 높으므로 증상이 사라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한다.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등이 원인이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에 의해 손상된 혈관 내벽에 침착된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을 점차 좁게 만들어 혈액 공급이 부족하거나, 좁아진 부위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을 수도 있다. 심방세동, 심장판막질환 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뇌로 들어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

뇌출혈은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 죽상경화증이 있어 신축성이 떨어지고 약해진 혈관 벽이 터져 생길 수 있다. 뇌동맥류·뇌동정맥 기형 등이 있는 경우에도 파열에 의해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 이외에도 혈관 박리, 모야모야병, 혈액 응고 질환, 혈관염 등 기타 다양한 질환에 의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뇌졸중 진단은 전문의에 의한 신경학적 검사와 영상 검사가 가장 중요하며, 혈액 검사 및 심장 검사 등이 필요하다. 기본이 되는 영상 검사로 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를 시행하며, 추가로 도플러 및 초음파 검사, 뇌혈관 조영술, 단일양자방출단층촬영(SPECT), 정밀 심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정기검진과 기저질환 관리가 최선의 예방법

뇌졸중 치료는 급성기 증상 호전과 악화 방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로 이루어진다. 뇌경색은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등 약물치료가 있으며, 큰 혈관이 막혔다면 혈전제거술 등 혈관 중재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뇌출혈은 혈압조절과 출혈 원인이 된 혈관 이상을 치료하는 혈관 중재 시술·수술로 치료한다. 급성기 치료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와 증상 호전을 위한 재활치료를 시행해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뇌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 흡연, 과음, 먹는 피임약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식사는 과도한 소금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하며, 체중을 조절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운동은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으로 일주일에 3~4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호준 교수는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온과 압력의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너무 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사우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뇌경색 환자라면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외상이 발생해 지혈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뇌 손상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또, 한 번 뇌졸중이 발생하면 급성기 치료가 이루어져도 뇌가 받은 손상 정도에 따라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뇌졸중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낫지 않고 계속되는 입병 '구강암' 일수도

금연 · 금주와 전문의 정기검진을 통한 관리 중요

구강암은 혀, 입천장, 혀 아래 구강바닥, 뺨점막 등 입술부터 목젖이 위치한 연구개 앞까지 구강에 발생하는 모든 암을 말한다. 흔히 접하는 다른 암에 비해 생소할 수 있지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1%가 증가했다.

박재홍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깨진 치아 방치하면?

구강암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2배 정도 많다. 술, 담배 등 흔한 발암 원인이 구강암에서도 중요하지만 깨진 치아와 같이 좋지 않은 치아상태 역시 주목해야 한다.

날카로운 치아의 일부가 뺨이나 혀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상처가 나고, 반복적으로 상처가 재발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기 때문이다. 실제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젊은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강암의 경우 지속적인 치아 간섭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그 외 드물지만, 만성적인 철분 결핍성 빈혈과 점막의 막성구조의 변화를 동반한 플러머 빈슨 증후군 환자에게서도 구강암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복되는 구강 궤양도 위험

구내염은 흔히 아프타성 구내염을 말한다, 주로 2~3주 내로 호전되나 자주 재발하는 구강 궤양이 주 증상이다. 특정 부위에 동일하게 재발하기보다는 입안 점막 전체를 돌아다니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여러 개 궤양이 동시에 발견되기도 하지만 구강암으로 직접 발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같은 부위에 지속적인 궤양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면 점막의 세포 단위 변이가 발생하여 암으로 이행될 수 있다. 따라서 3주 이상 동일한 부위의 궤양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전문의를 찾아 조직검사 등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초치료는 대부분 수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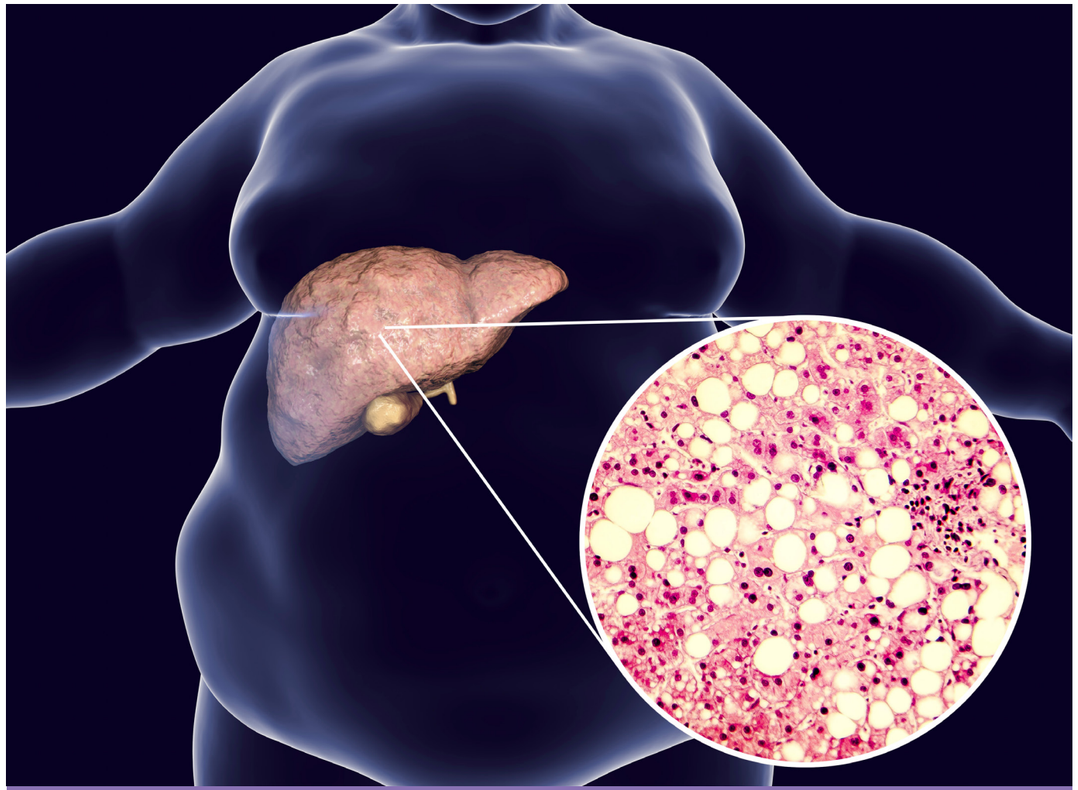
구강암은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전이가 있거나 종양의 특징이 침습적인 일부 암의 경우 수술 후 3~4주 후에 보조적인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수술의 경우 주변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하고, 구강을 통해 병변을 단순절제하는 초기 암부터, 턱뼈나 입천장뼈를 제거하고, 다리와 팔의 살과 뼈를 이식하여 복원하는 진행 암까지, 치료의 범위도 병변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입을 벌리는 데 중요한 뺨 점막에 발생한 경우, 혀의 아랫부분인 구강 바닥에 발생한 경우, 턱뼈에 침습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피판이식술을 시행한다. 이식술은 팔과 다리의 피부와 뼈를 선택적으로 이식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발음과 저작의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다.

금연, 금주, 정기적 치아관리

위에서도 밝혔듯이 구강암은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후천적인 생활습관과 연관성이 더 높다. 또 지속되는 구강 점막의 자극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따라서 금연, 금주에도 힘쓰고, 정기적인 치아 관리를 통해 구강 점막과 치아의 간섭이 발생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구강암을 예방할 수 있다.

정기검진, 조기발견 중요

수술환자의 경우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중복암의 경우도 있어 1년 1회 전문의의 검진을 권고한다.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면 구강 구조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수술 범위도 줄일 수 있다. 의심되는 증상 및 소견이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전문의 진찰을 통해 확인하고,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비약물 치료인 생활습관 교정치료가 효과적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간 내 지방 침착을 보이지만 간세포 손상 및 섬유화가 없는 비알코올 지방간과 간세포 손상을 동반한 염증 소견이 있으면서 섬유화를 동반하는 비알코올 지방간염, 마지막으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연관 간경변증을 포괄하는 질환군이다.

김민성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비알코올 지방간에 비해 비알코올 지방간염은 간섬유화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연관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국내 발생률은 1,000명당 연간 약 45명 정도이며, 유병률은 약 30% 정도이다. 비만하지 않은 인구의 유병률 또한 1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질환은 유의한 음주, 약인성, 바이러스 간염 등과 같은 간 질환이 없으면서 간 조직검사에서 5% 이상의 지방이 침착된 경우로 정의되는데, 여러 질환(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비만의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은 BMI(체질량지수)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환자 역시 유병률이 50% 이상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속적인 간 효소 수치 상승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선별검사를 시행하며 또한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사증후군, 비만 및 그 외의 위험인자를 가지는 경우도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선별검사는 복부초음파 검사가 일차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지방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CT, MRI, 혈청검사, 간 섬유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조직소견에 따라 예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증 및 섬유화를 진단하고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까지 간 실질의 염증, 지방증, 섬유화를 진단하는 표준검사는 간 조직검사이다. 그러나 고비용, 침습성, 합병증 발생의 위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판독의 오차 가능성, 채취된 작은 조직으로 인한 표본오차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임상에서는 복부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영상학적 검사와 혈청학적 검사를 바탕으로 한 패널 등 비침습적 검사가 흔하게 사용된다.

치료는 간 내 염증 및 섬유화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반된 대사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비약물 및 약물치료를 포함하고, 심혈관 질환 및 간 관련 합병증의 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중감량, 식이조절 및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과 당뇨병,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동반 질환의 치료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치료의 근간이며 간 내 섬유화 및 염증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서 적용된다.

비약물치료인 생활습관 교정치료 요법으로 집중 관리 중요

첫째로, 체중감량이다. 비만한 환자의 경우 7% 이상 몸무게를 감량한 경우 간 내 지방량 및 간염 소견이 감소하였고, 체중감량 정도가 클수록 조직학적 개선 효과가 컸다. 10% 이상 체중이 감소된 경우 45%에서 간 섬유화도 개선되었다. 다만 급격한 체중감량보다는 1주일에 1kg 이하의 점진적인 체중감량이 권고된다.

둘째로, 식이 요법의 경우 저탄수화물 식이가 간 내 지방량을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서구의 연구가 있으나 저탄수화물 식이와 저지방 식이를 비교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간 내 지방량 감소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총 에너지 섭취량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치료에 더 중요한 요소이며, 하루 500Kcal 이상의 에너지 섭취량 감소가 필요하다.

셋째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적은 활동량과 연관이 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의 증가와 활동량의 감소에 따라 BMI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 질환의 발생 예방 및 질환의 호전효과를 보였다.

중등도 강도의 활동은 빠른 걸음, 춤추기, 수영 등이 포함되며, 운동시간은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에서 60분가량 최소 6주 이상이 효과적이었다. 이와 같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많은 부분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검진의 일상화로 인하여 무증상 간 수치 효소의 이상을 확인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무(無)증상이라 하여 무(無) 질환인 건 아니므로, 간 수치 효소의 이상이 있을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상담 및 치료가 중요할 것이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 QI페스티벌 개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QI페스티벌’이 지난 24일 오후 순천향대천안병원 송원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QI페스티벌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부속병원(천안·서울·부천·구미)이 지난 1년간의 의료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활동을 공유하고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zoom)으로도 생중계된 QI페스티벌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권금주 전 아모레퍼시픽 CEO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리더십’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총 8개의 활동 성과가 발표됐다. 부속병원별 발표주제는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 입원환자 재실기간 단축 ▲다학제 통합진료 활성화, △서울병원 ▲약물이상반응 업무 FLOW 개선을 통한 안전한 처방 유도 ▲암 환자의 경구용 항암제 복용이행도 높이기, △부천병원 ▲조영제 부작용 및 일혈 예방을 위한 검사 프로세스 관리 ▲가납물품 시스템 개발 및 개선, △구미병원 ▲비예약 당일 CT검사 대기 소요시간 단축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 대기시간 단축 등이다.

서유성 중앙의료원장은 총평에서 “발표를 통해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의견도 잘 전달받은 시간이었다”면서, “시급한 일부터 서서히 개선하며 부속병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평가서 3년 연속 최고등급

순천향대(총장 김승우)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거점형) 연차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재학생(졸업생)에게 진로 및 취업 지도와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기반의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다. 순천향대는 2018년 ‘대학일자리사업’에 선정돼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거점형)’으로 교차 전환해 총 5년의 사업기간 동안 15.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사업 기간(5년) 중 3회 ‘우수’ 평가 등급을 받아 그 인센티브로 1년 동안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는다.

만 81세 의학박사 탄생…순천향대 학위 수여식 개최
학사 2186명, 석사 223명, 박사 25명 졸업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가 2023년 2월 16일, 2022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해 총 2434명의 미래 혁신 인재를 배출했다. 이번에 배출된 졸업생은 학사 2186명을 비롯해 일반대학원 석사 103명, 교육대학원 석사 91명, 건강과학대학원 석사 9명, 법과학대학원 석사 7명, 미래융합대학원 석사 13명, 일반대학원 박사 25명 등 총 2434명이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는 만 81세의 나이로 순천향대 최고령 의학박사가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이순국씨는 1942년 대구에서 태어나 온양펄프 창업, 신호그룹 대표이사 등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 중, 70세에 협심증으로 쓰러져 예방의학에 관심을 갖고, 2020년 9월부터 의과학과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이성수 교수의 지도로 생리학, 의학, 건강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도전하고, 예방의학과 스포츠의학을 접목한 졸업논문으로 의학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김승우 총장으로부터 이순국 박사가 의학박사 학위를 받는 모습

2023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 충남 ‘유일’

순천향대(총장 김승우)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충남 유일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기술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총 20개 내외의 주관기관을 선발(충청·강원권에서 4개)했으며, 충남에서 유일하게 순천향대가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천향대 ‘2023 산학연협력 페스티벌’ 개최

순천향대학교 LINC3.0사업단이 2월 9일 천안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호텔에서 지자체·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3 산학연협력 페스티벌’을 열었다. 순천향대는 △산학협력 지원 프로그램 소개 △산학협력 우수사례 발표 △기업가에게 필요한 노동법 특강 △창업동아리 소개 △산합협력·공동기기원 안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순천향대 LINC3.0사업단이 주최하고 교육부·한국연구재단·충남도·아산시에서 후원했다.

협력병의원을 위한 특별 건강검진 행사 실시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최경식 센터장)와 건강증진센터(김현건 센터장)는 2월 26일, 협력병의원 원장과 배우자 70명을 대상으로 일요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했다. 위/대장 내시경을 비롯해 CT,MRI.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는 1주일~2주 이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매년 2월과 8월 4째주 일요일에 2회를 지원하고 있는 일요건강검진 행사는, 토요일까지 진료를 봐야하는 협력 병의원 원장을 위해 일요일에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경식 진료협력센터장은 "협력 병의원과 유대강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교직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권성순, 윤석윤 교수팀 연구비 수혜

심장내과 권성순

종양혈액내과 윤석윤

서울병원 권성순 심장내과·윤석윤 종양혈액내과 교수팀이 1월 14일(토) 열린 심장종양학연구회 동계심포지엄에서 대한심장학회 심장종양학연구회 2023년도 연구비 공모에 선정됐다. ‘빅데이터 연구비’분야이며 1년간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권성순·윤석윤 교수팀의 연구 주제는 ‘심근경색 환자에서의 혈액암 발생 위험: 건강보험공단 연구’이다.

김태형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김태형 감염내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 건강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저소득층 환자, 국내외 의료봉사에 1억7천여만원 지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지난해 174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1억4천2백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 것을 포함, 사회복지시설 및 해외 의료봉사 활동 등에 총 1억7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자선 의료후원금은 원내 교직원의 개인 기부와 간호사협의회, 간호조무사협회, 순천향대 간호학과 서울병원 동문회 등에서 기부한 6천7백여만원과 가장큰태평양약국, 건강과학 CEO과정 동문, ㈜LIG, 제이더플로워 등에서 1억2백여만원의 후원으로 마련했다. 후원은 저소득 사각지대 환자와 투석환자, 독거 노인, 여성 가장, 외국인 등 174명의 치료비와 아동 생활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외국인노동자, 노숙인 대상 국내 의료봉사와 몽골 울란바토르, 네팔, 베트남 퀴논 등에서 진행한 해외 의료봉사활동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정재 병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병원의 미션인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다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

부천병원

부천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최근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등 4개 영역에 대한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특히 본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감염관리 적절성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최종 치료 제공률 △재난대비 및 대응 등 모든 평가 지표에서 1등급을 받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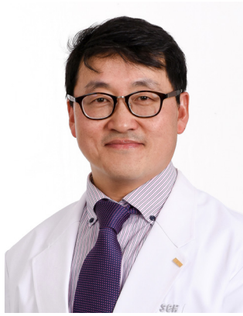
정문영 신경외과 교수, '제14회 대한말초신경학회 갈렌학술상' 수상

정문영 신경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제14차 대한말초신경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학술상인 '갈렌학술상'을 수상했다. '갈렌학술상'은 한 해 동안 대한말초신경학회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정문영 교수는 '난치성 두통에 대한 후두신경 감압술의 효과'에 대해 발표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문영 교수는 '후두신경 감압술'이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았던 만성 난치성 두통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만성 난치성 두통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형철 외과 교수, '대한종양외과학회장' 취임

김형철 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종양외과학회(KSSO) 국제학술대회 및 제19차 대한종양외과학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2월까지 1년간이다. 대한종양외과학회는 2005년 정식 학회로 출범해 현재 1천백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국내 대표 종양외과 학술단체로, 교과서를 발간하고 국내 및 국제 학회를 개최하며 외과적 암 치료의 연구 및 교육 수준 향상에 앞장서 왔다. 김형철 신임 회장은 외과 전문의 및 간담췌외과 세부전문의로서 국내 최초 무수혈 간이식 수술(2011년) 등 우수한 간·담도·췌장 분야 수술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간담췌외과학회(2018~2019년 회장 역임), 세계간담췌외과학회, 대한초음파외과학회(2018년~현재 부회장 역임) 등에서 왕성한 학술 활동을 이어왔다. 또, 2014년부터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국제의료협력단장 및 순천향대 부천병원 7~8대 부원장을 역임하며 국제 환자 진료 및 경기 서북부권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채원석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장' 취임



채원석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산하 세부학회로, 2014년 연구회 결성, 2016년 정식 학회로 발족되었다. 현재 5백여 명이 소속된 학술 단체로, 증가하는 노인 환자 수요에 따라 관련 학문 연구 및 교육 발전에 주력해온 결과, 모학회인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산하 세부학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국제교류가 활발한 학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 채원석 신임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 대한외래마취학회 등에서 왕성한 학술 활동을 이어왔으며,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2018년부터 진료부장·진료지원부장, 수술실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발전에 기여해왔다.

천안병원

신경외과 오혁진 교수, 몽골 의료진에게 선진의술 전수

천안병원 신경외과 오혁진 교수가 3월 2일부터 6일까지 몽골 국립 암센터를 방문해 몽골 의료진에게 순천향의 뛰어난 선진의술을 선보였다. 오 교수는 내시경을 이용한 두개골 수술(Endoscopic skull based surgery) 관련 강의 및 수술 집도를 통해 현지 의료진 교육을 실시했다. 오 교수의 강의와 수술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어 몽골 국립1병원과 3병원, 국립암센터, 국립모자보건센터 의료진 외에도 몽골 전역 의료진에게 널리 공유되었다. 이번 교육은 몽골 보건부와 보건개발원 초청 현지 의료진 역량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몽골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몽골 보건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신경외과 심재준 교수, 제15대 대한말초신경학회장 취임

천안병원 신경외과 심재준 교수가 대한말초신경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이다. 대한말초신경학회는 각종 통증과 신경병증, 종양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다학제 학회다.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500명이 넘는 전문의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학술지 'The Nerve' 출간과 다양한 정기 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말초신경 손상 치료분야의 연구 및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이한유 교수,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이한유 교수가 119구급서비스 수준향상 및 구급대원 역량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전국의 각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119구급대원 신임-전문화-특별구급대 교육 등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지도의사로 참여했다. 표창은 교육에 참여한 119구급대원과 소방학교 교관, 구급지도관들의 강의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전국의 지도의사 4명에게 수여됐다.

직업환경의학과 장은철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천안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장은철 교수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구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이용자가 사망 및 폐손상 등의 질병을 일으킨 사건이다. 장은철 교수는 2020년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조사판정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각종 의학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장 교수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건강상태와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제급여 제도를 통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해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는 지난해까지 7,805명이 신청해 3,354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았다.

희귀·난치성질환 세포치료제 개발 나서

천안병원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천안병원은 1월 31일 병원 회의실에서 케이스템바이오㈜(대표 이승구), 휴먼바이오텍(주)(대표 이효종)과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 약품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원과 협약을 맺은 두 업체는 줄기세포 및 배양물 생산과 항생물질 제조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천안병원과 두 기업은 병원 내에 공동연구공간을 마련하고 세포생산 및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 줄기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이종세포 등을 이용해 희귀·난치성 질환의 세포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개발 후 치료제 생산을 위한 GMP센터도 설립해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구미병원, “제1차 치매 적정성 평가” 최우수 1등급 획득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1차 치매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치매 진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간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의원급 이상 88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등 총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과 결과, 구미병원은 전문의,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등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 72.9점(종별 평균 84.8)보다 높은 95점을 획득해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안병준 신경과 교수는 2018년부터 구미시 선산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로 위촉되어 2차 치매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치매관리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정일권 병원장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의료진과 치매 원인질환의 감별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통합적 치매 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2023년도 시무식 개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도약”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1월 2일 오전 8시 원내 향설회의실에서 2023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정일권 순천향대 구미병원장을 비롯하여 서유성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7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하지 못한 교직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 하였다. 시무식 행사는 ▲고객감동 실천 선언문 낭독 ▲개식선포 및 국민의례 ▲모범직원 포상 ▲신년사 ▲교직원 신년 하례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일권 병원장은 “교직원의 긍정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여 순천향 인술 100년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이루는 한해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도약과 교직원들의 에너지와 열정으로 더욱 진력하여 지역의 중심이 되는 최고의 거점병원으로 도약하자”며 의지를 밝혔다. 서유성 중앙의료원장은 “2022년,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경북 중서부권 최종 거점병원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쾌거를 이루어 냈다”며, “2023년은 경북권을 넘어 전국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줄 구미병원 모습을 기대한다” 말했다.

구미병원, “순천향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전액 구미시에 기탁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순천향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 865만원 전액을 구미시에 기탁했다. 순천향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설립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순천향대 구미병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주요 보직자를 비롯하여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노동조합, 행정부서장 등 많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865만원의 성금 모금이 마련돼 따뜻하고 감동이 넘치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으며, 구미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를 끌어 올려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정일권 병원장은 “순천향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준 전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순천향대 구미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김대근 정형외과 교수, 하트세이버 선정돼 표창 수여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귀중한 인명을 회복시킨 김대근 정형외과 교수가 하트세이버(Heart saver)로 선정돼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7월, 구미의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대원에게 인계해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22년 11월 하트세이버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의료인으로서 어떤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보건복지부 주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선정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명칭 : 새싹지킴이병원)으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신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2년 첫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8개 병원을 지정하였고, 2023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신규 5개 병원을 추가 지정하여 전국 13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운영한다. 구미병원은 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와 학대 조사·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병원내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변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위원장 황성일, 재활의학과 교수)를 통해서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 및 사례관리에 대한 원내외 자문 활동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